

동근 바다가 가출을 부추기는 곳, 정남진

김영남 | 시인

따뜻한 해풍이 육지에 가장 먼저 닿는 곳으로 대지의 건강한 생명력이 바로 이곳 정남진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래서 정남진이라는 이름 속에는 어머니의 바다라는 의미가 담겨있다. 굽이굽이 돌아나가는 해안선과 무수한 섬으로 둘러싸인 득량만의 옥색 바다, 그리고 논밭이 함께 어우러진 마을에서 다양한 유년 체험을 하며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닌 화가 김선두. 아름다운 바다와 큰산을 함께 아우르는 체험을 동시에 할 수 있었다는 게 특별함으로 다가온다.



정남진 바다인 득량만의 일몰 풍경

서울을 기준으로 진짜 남쪽이 어딘지 아십니까? 정 동쪽인 '정동진'이 아니라 정 남쪽인 '정남진' 말입니다. 드라마 <모래시계>의 촬영지가 아니고, 영화 <축제>가 촬영되었으며 <천년학>의 촬영지. 궁금중의 허기를 채우는 데에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요? 그러면 '매생이'가 나는 곳으로 유명한 고장을 아십니까? 매생이, 무슨 곤충 이름 같다고요? 이건 곤충 이름이 아니라 해초 이름입니다. 이 해초는 여기 바다가 원산지이고 숙취해소에 최고인 이 지방 특산물입니다. 술로 며칠 밤을 새웠다면 그 속은 이걸로 다스려야 제대로 풀려요. 거길 한번 가보고 싶다고요? 그러면 밖으로 나와 보세요. 완전히 나와 버리면 집에서 쫓겨나기 쉬우니깐 절반만 나오세요. 나와서 일단 얼굴을 한번 들여보세요. 그리고 가장 따뜻하고 그림계 다가오는 방향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 방향에 진짜 남쪽인 정남진이 있습니다. 진짜 남쪽은 봉황도 깃드는 매우 상서로운 자리입니다.

천관산 자연환경 속에서 성장한 김선두

한국화가 김선두가 태어난 곳이 바로 이 곳, 정남진이다. 북쪽에는 중강진, 동쪽에는 정동진이 있듯이 정남진은 서울 광화문을 기점으로 정 남쪽에 있는 나무라는 뜻이다. 정남진은 따뜻한 해풍이 육지에 가장 먼저 닿는 곳으로 대지의 건강한 생명력이 바로 여기 바다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래서 정남진이라는 이름 속에는 어머니의 바다라는 의미가 담겨있다. 그리고 그 이미지는 둥글다, 마치 어머니 자궁처럼. 실제로 여기에 서서 사방을 둘러보면 바다가 둥글고, 땅이 둥글고, 하늘도 둥글게 다가온다. 정남진의 정확한 위치는 전라남도 장흥군 관산읍 신동리 사금마을이다. 장흥

군에서도 한가운데인 정 남쪽 해안에 위치한다.

김선두는 1958년 정남진 사금마을 인근의 평촌마을에서 그림을 그리는 부친 김천두의 3남 1녀 중 3째로 태어난다. 집 뒤로는 호남의 5대 명산인 천관산, 앞으로는 굽이굽이 돌아나가는 해안선과 무수한 섬으로 둘러싸인 득량만의 옥색 바다, 그리고 논밭이 함께 어우러진 마을에서 다양한 유년 체험을 하며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닌다. 못살고 어렵던 시절 당시 유년체험이라야 어느 지역이나 비슷하겠지만 아름다운 바다와 큰산을 함께 아우르는 체험을 동시에 할 수 있었다는 게 김선두에게는 특별하다.

풍부한 시각적 환경 속에서 자란 그가 그림 공부에 본격적으로 몰두하게 된 것은 고교시절부터였다. 물론 초등학교 시절 형의 노트를 훑쳐 그림 연습장으로 쓰다가 형에게 들켜 몹시 두들겨 맞은 적이 있지만 그건 그림 그리기에 대한 본격적인 인식에서 기인한 것은 아니었다. 이것은 아버지가 할아버지와는 불화로 집을 나가 서울에서 홀로 그림 작업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연민, 또한 이를 뒷바라지하기 위해 집을 떠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바깥 세상에 대한 호기심 등을 뒤편으로 끄적거리려고자 하는 몸부림이었을 것이다.

채색 인물화의 촉망받는 작가

그는 화가가 되겠다고 결심하고 중앙대학교 한국화과에 진학하게 된다. 대학시절 그의 작품세계에 영향을 끼친 두 분의 스승을 만난다. 바로 산동 오태학과 일랑 이종상이다. 1984년 제7회 중앙미술대전에서 <이지러진 달>로 대상을 수상하면서 촉망받는 신예작가로 부상하게 된다. 특히 은은하면서도 때론 강렬한 색감의 장지법과 힘찬 필묵의 선묘, 정확한 데생과 독특한 느낌의 채



위 · 김선두 <외길> 장지, 먹 145×111cm 1985
아래 · 김선두 <행-평촌시절> 장지, 먹 66×48cm 2003

오른쪽 페이지
위 · 김선두 <노고지리> 장지, 먹 33.5×49cm 1996
아래 · 김선두 <저무는 길> 47×50cm 2003

색 인물화는 당시 깊은 늪에 빠져 있던 한국화단에 새로운 돌파구를 개척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후에도 그는 <2호선> <외길> <비 맞고 간다> 등 채색 인물화에 많은 열정을 갖고 작업을 진행한다. 그가 관심을 갖는 인물들은 남의 뒷전일지라도 치열하게, 때로는 정직하게 고집스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야생초 같은 사람들이다. 어쩌면 이런 모습들이 그동안 번두리 삶을 살아온 자신의 모습과 가장 많이 닮아 있기 때문이었는지 모른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부터인가 갑자기 도시 주변의 인물화에서 고향의 땅과 사람들 이야기로 그의 시선을 옮긴다. 그리곤 현재에 이른다. 왜 그랬을까? “나의 인물화는 정형화되어 더 이상 재미가 없어졌다. 작가의 그림세계는 무엇보다도 어릴 적 경험으로부터 시작된다. 나의 미감을 싹틔워준 곳부터 그려보자. 내가 태어난 곳으로부터 다시 시작한다면 그림에 나의 체취가 진하게 배어들 것이다. 이렇게 시작한 것이 나의 <남도 연작>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그가 그토록 천착하고 싶었던 고향, 정남진 그림은 어떤 모습일까? “나의 산수화는 현대적인 진경산수이자 생활산수라 할 수 있죠. 현장을 재현하는 실경에서 벗어나 그 지역이 지닌 정신과 분위기를 새로운 조형어법으로 형상화하되 관념적이며 교조적인 형식을 지양했기 때문입니다. 나의 풍경은 붉은 황토밭이 아름다운 언덕이나, 벼가 넘실대는 여름날의 푸르른 논, 그 사이로 육자배기 가락처럼 흘러가는 길과 같은 것들에서 아름다움을 구현하고자 하는 진경산수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 그림을 부감법으로 보는 이들도 있는데 이걸 위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역원근법으로 땅을 세운 것이고, 그 세움으로 인해 땅의 생명력을 더 극대화하고자 하는 의도인 거죠.”

그림에 형상화 된 정남진 풍경들

그의 작품 무대인 고향 정남진의 실경이 <그리운 잡풀들> <행> <고향 속살 읽기> 등 그의 작품 속에서 어떻게 형상화되었는지 대표작 위주로 한번 살펴보자. 이 그림은 <행> 시리즈에 나오는 작품이다. 김선두가 태어나 자란 평촌 마을에 있는 소나무 풍경 그대로이다. 이름 하여 이송. 이는 아버지가 김선두에게 어느 날 “너에게 마을 뒤 큰 소나무 같은 스승 두 분이 있으니 그분들의 가르침과 사랑을 잊지 말고 항상 쉽 없이 큰 그림의 길을 가거라” 하면서 호를 내려준데서 생겨난 이름이다. 그가 화가로 크게 성장하는데 산동 오태학과 일랑 이중상이 영향을 주게 되는데 바로 이 두 스승을 두고 아버지가 오래전부터 예측하지 않았는가 싶다.

필자도 어느 날 고향 답사 동행 길에서 소설가 이청준이 이 소나무를 보고 <유천재 화향 만년>이란 그림을 주면서 아버지와 아들 소나무로 읽는 것을 들은 바 있다. 아버지와 아들 화가가 이 마을에서 술향 같은 묵향을 오래도록 피우길 바란다는 뜻으로 말이다. 그런데 그는 오른쪽 소나무는 그의 아버지, 왼쪽 소나무는 그의 형으로 여기며 한사코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었다. 평소에만 살 더 많은 필자에게도 답답할 정도로 깍듯한 예의를 갖추더니 그 이유가 바로 저 소나무에게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여하튼 이 그림은 김선두의 그림 중 가장 실경에 가까운 그림이며, 더불어 가장 훌륭한 교훈도 갖고 있는 그림이다.

<노고지리>는 <남도> 시리즈에 나오는 작품으로 고향 정남진의 봄 풍경이다. 배꽃이 드문드문 핀 과수밭, 녹색이 짙어가는 보리밭, 먼지가 풀풀 일 것 같은 언덕 위의 황토길 등 이 지역 어디에서나 흔하게 볼 수 있는 봄 풍경이다. 오래 보고



있으니 황토길 위로 가위를 찢렁거리며 옛장수 아저씨라도 지나갈 것만 같고, 자전거를 탄 우체부 아저씨도 지나갈 것만 같은 느낌이 든다. 그만큼 이 그림은 남도적 서정이 짙고 울림 또한 크다. 3월에 이 지역을 한번 방향해 보라. 정남진의 봄은 언덕의 돌담 사이에서 시작되어 보리밭에서 짙어지고 하늘에서 명랑해질 것이다. 그러면 그는 또 고향의 여름풍경을 어떻게 형상화하게 될까? 그의 여름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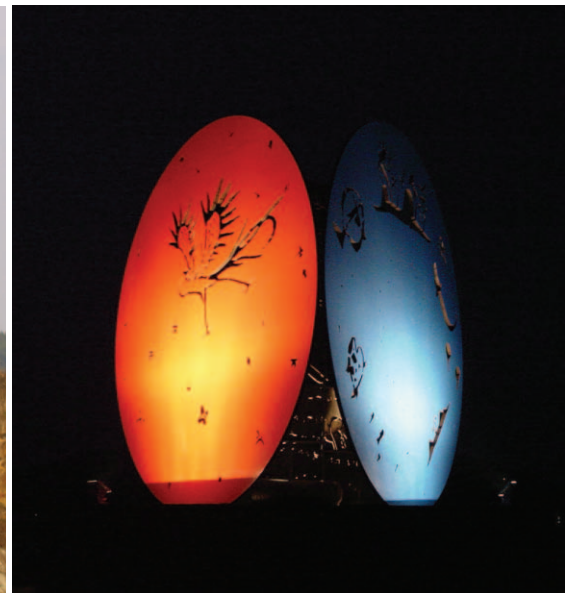
“내 작품 <저무는 길>에는 여름의 녹색 산들바람이 분다. 그 산들바람은 시간을 타고 불어오고 그 시간 속에는 풀벌레들 소리가 가득 실려 있다. 어린 시절 여름방학이면 나는 마을 뒤 천관산에 올라 이듬해 봄에 쓸 퇴비용 꼴을 한 짐씩 해오는

정남진이라는 이름 속에는 어머니의 바다라는 의미가 담겨있다. 그리고 그 이미지는 둥글다, 마치 어머니 자궁처럼. 실제로 여기에 서서 사방을 둘러보면 바다가 둥글고, 땅이 둥글고, 하늘도 둥글게 다가온다.

은 정말 멀었다. 어린 내 어깨 위의 꿈망태는 나를 고통스럽게 짓눌렀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 황혼녘에 만나는 녹색 바람과 풀벌레들 소리는 내 고통을 잊게 하는 동요였고, 하루의 아쉬움과 회한을 달래주는 저물녘 들길의 영가였다" 라고 어릴 적 여름 풍경을 말한다. 그의 말을 듣고 그림을 다시 바라보니 그의 고향인 평촌 들길로 나도 소를 몰고 돌아오고 있는 것만 같다.

이끌어 낸 소설가 이청준과 관계가 있다. 또한 갯벌은 썰물 때 이 지역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겨울 풍경이다. 이 갯벌에서 사람들은 굴과 조개를 캐고, 감태와 매생이와 김을 채취해 겨울철 수익을 올린다. 따라서 그는 이 풍경을 묘사하면서 이 마을 출신 소설가와 거기 사람들의 겨울 삶을 말이 시리도록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다.

역새꽃은 따뜻한 햇볕과 기름진 해풍에 흔들리면서 피기 때문에 그 꽃의 모양과 자태가 매우 아름답다. 이 무렵 정상에서 흔들리는 역새꽃과 함께 노을이 먼 바다에 깔리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여기에 그냥 주저앉아 며칠을 묵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노을을 어루만지는 천관산 역새꽃은 그만큼 비경이다. 이 밖에도 정상의 기암괴석, 동백꽃이 아름다운 장천재, 54인의 문인들 문장



왼쪽 · 〈겨울바다〉 장지, 먹 160X120cm 2004
오른쪽 · 천관산의 역새 풍경. 노을을 어루만지는 천관산 역새꽃은 비경을 자랑한다.

오른쪽 페이지
왼쪽 · 임권택 감독의 영화 〈천년 학〉 촬영 세트장
오른쪽 · 김선두의 조형물 〈둥근 바다〉. 별들이 무리진 붉은 하늘 아래 경험하는 또 하나의 아름다움이다.

것이 나의 일이었다. 오후 내내 꼴을 베어 한 짐씩 지고 산비탈을 타고 시내를 건너 콩과 가지와 옥수수가 가득한 밭을 지나 우리 집에 이르는 길

〈겨울바다〉는 회진항 탱자섬 주변의 겨울 풍경을 형상화한 그림이다. 눈이 내린 회진항은 썰물 이어서 갯벌이 다 드러나 있다. 멀리에 있는 탱자섬과 갯벌을 크게 그리고 가까이에 있는 마을과 언덕을 조그맣게 그려놓은 역원근법의 작품이라 다소 생소하다. 그러나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풍경을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 그는 멀리에 있는 탱자섬과 갯벌을 강조하고 싶었으리라. 탱자섬은 여기 바다를 무대로 많은 이야기들

정남진 부근의 대표적인 풍경과 명소
지금까지 김선두 그림을 통해 정남진의 모습을 살펴보았다. 그러면 정남진을 대표할 수 있는 실제 풍경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 정남진 부근의 대표적인 모습으로는 천관산, 아름다운 해안선과 득량만의 둥근 바다, 그리고 이 풍광을 밀바탕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 지역출신 예술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다. 천관산(해발 723m)은 한반도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호남의 명산이다. 특히 가을

이 기념비에 기록되어 있는 천관산 문학공원 등은 정남진의 풍경을 한눈에 가장 높고 넓게 조망할 수 있게 하는 곳이다.
정남진의 가장 인상적이고 매력적인 풍경은 뽀뽀 뽀뽀 해도 굽이굽이 돌아가는 해안선과 그 해안선을 둥글게 감싸주는 득량만의 푸른 바다, 그 바다에서 펼쳐지는 일몰과 월출일 것이다. 바로 이 풍광을 조망할 수 있는 곳에 김선두의 〈둥근 바다〉라는 조형물이 있다. 조형물이 있는 곳의 조

정남진의 가장 인상적인 풍경은 굽이굽이 돌아가는 해안선과 그 해안선을 둥글게 감싸주는 득량만의 푸른 바다, 그 바다에서 펼쳐지는 일몰과 월출이다. 바로 이 풍광을 조망할 수 있는 곳에 김선두의 <등근 바다>라는 조형탑이 있다.



위· 풍경 자체가 한 폭의 그림으로 인식되는 한재산 오르는 길 아래· 매생이를 손질하고 있는 광경. 매생이국은 겨울철에 먹는 정남진의 대표적인 계절음식이다.

땅은 360도 사방 모두가 아름다움 그 자체다. 들판 멀리 천관산이 병풍처럼 펼쳐져 있고, 제방 너머로는 옥색바다와 가슴앓이 섬을 비롯한 크고 작은 섬들이 손을 흔들어 온다. 그때 배라도 한 척 지나가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오빠”하고 소리를 지르게 될 것이다.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땅거미가 지고 달이 뜰 무렵이다. 바다를 등지고 조형물을 한번 바라보라. 별들이 무리진 붉은 하늘 속을 힘차게 날고 있는 상상의 새 한 마리, 봉황도 만나게 될 것이다.

이 바다에서 나는 특산물 또한 빠뜨릴 수 없는 항목이다. 청정바다인 이곳에서 생산하는 매생이와 감태는 전국 유일의 산지이며 이 식품은 웰빙 건강식품으로 미식가들로부터 해산물중 최고의 찬사를 받는다. 여기 바다는 한때 우리나라 김 생산의 최대 생산지였으며 현재도 김, 키조개, 꼬막, 하모(갯장어), 전어 산지로 유명하다. 가을철에는 전국 바다낚시 대회, 여름철에는 갯벌체험 행사인 개매기(바다고기잡이) 축제가 바로 여기 바다에서 열린다. 정남진을 여타 고장과 다르게 부각시키는 것이 있다면 이는 아마 이 지역출신 예술가가 어느 고장보다도 많다는 것이 아닌가 싶다. 문인, 화가, 음악인 중 문인은 현존 활동 작가중 최다를 기록하고 있다. 이청준, 한승원, 송기숙, 이승우, 김석중 등의 소설가와 김제현, 이한성, 이대흠, 위선환, 문정영, 필자 등의 시인과 이동문학가 김녹춘, 평론가 장일구 등 현재 활동 중인 문인 수는 거론하기가 힘들 정도이다.

특히 이청준은 유년체험을 바탕으로 이 지역 삶의 정서를 가장 널리 알린 작가이다. 그의 소설 <눈길>은 현재도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려 있어 매년 많은 학생들이 그의 문학현장을 답사하기 위해 이곳을 방문한다. 그의 작품 <축제>는 이곳

회진항 바다를 배경으로 촬영되었으며, 소설 <선학동 나그네>도 임권택 감독에 의해 현재 <천년학>이란 제목으로 촬영 중에 있다.

바다를 꺼안고 누군가를 그리워하며

정남진 일대를 제대로 살피려면 서울을 기준으로 1박 2일의 여정이 필요하다. 서울에서 오전 9시에 출발하면 오후 4시경에 장흥 읍에 도착한다. 장흥문화원에 들러 안내를 받고 보림사에 들른 다음 저녁을 먹는다. 다음날 아침 8시에 출발해 소설가 한승원의 해산토굴, 정남진 조형물, 장천재, 평촌마을(김선두의 생가), 천관산 문학공원을 거쳐 회진항에서 1시에 점심을 먹는다. 이후 인근 한재산에 올라가 아름다운 득량만 다도해를 조망한 다음, 천년 학 세트장, 소설가 이청준 생가를 거쳐 마량항에 도착한다. 마량항 부둣가에서 5시경 저녁을 먹은 다음, 6시경 출발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안도로인 마량에서 강진까지 해변을 감상하며 서해안 고속도로를 따라 귀경하면 된다.

이 코스를 거꾸로 답사해도 매우 색다른 여정을 즐길 수 있다. 즉 강진 읍에 4시에 도착해 영광 생가에 들른다. 강진에서 마량까지 해안도로(칠량 전망대에서 바다 조망, 저두리 해안 산책)를 따라 도요지 대구의 청자박물관에 들러 마량항에 도착한다. 여기에서 회를 곁들여 저녁을 먹고 1박을 한다. 다음날 일정은 앞의 일정을 거스르되 시간에 따라 가감하면 된다. 위의 두 코스는 장흥을 기준으로 하느냐, 강진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 여정이다. 현장답사와 더불어 빼놓을 수 없는 체험이 또 있다. 장소가 맛의 고장인 남도인 만큼 맛 체험은 건너 뛸 수 없는 항목이다. 정남진에는 유명한 음식이 많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정남진을 두고두고 잊지 못하게 할 대표적인 음식을 계절별로 든다면 겨울철에는 매생이국과 감태 김치, 봄에는 키조개 회와 바지락 회, 여름에는 하모회, 가을에는 전어회가 있다.

이들은 정남진 청정바다의 갯벌에서 나는 것으로 맛의 고장 남도에서도 소문이 난 음식이다. 이 음식을 제대로 맛보려면 장흥 읍에서는 '신록원 식당', 수문포에서는 '정남진 회타운', 관산읍에서는 '병영식당', 회진항에서는 '양지식당'을 찾으면 된다. 특히 겨울철에 맛볼 수 있는 감태 김치의 씹스름한 맛과 시끄럽고 복잡한 속을 일거에 조용한 바다처럼 통일시켜 버리는 매생이국은 정남진의 특수한 먹거리이다. 추운 겨울에는 따뜻한 남쪽을 찾는 것이 가장 훌륭한 먹거리를 찾는 비결이다. 거기에서 등근 바다를 꺼안고 누군가를 맘껏 그리워해 보자.

내가 바다를 그리워하는 진짜 이유는

김영남

내가 정남진 바다를 그리워하는 이유는 지금 내 눈 앞에 둥글게 떠오른 게 달이고, 그 달이 등근 미소를 던져주기 때문이 아닙니다. 더욱이 섬 위를 굴러 나와 여기 조형물 위를 기어오를 때나 서산 바위틈에 숨을 때에 그 모습이 둥글어서가 아닙니다. 예 바다를 내 그리워하는 진짜 이유는……

내 예 바다를 그리워하는 진짜 이유는 가을날 천관산 억새숲 속에 그대가 내게 정남진의 등근 바다를 남기며 떠났고, 그게 날 텅굴게 했기 때문입니다. 네모난 방을 방빙 돌게 했고 낯선 고장까지 홀로 떠돌게 했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 등근 사상(思想)을 품고 뒹고 베풀며 살아가게 했기에……